국내
마감시황

2026. 5. 12.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코스피 8,000선 목전에서 하락

코스피, 장 초반 7,999.67pt까지 상승 후 하락 전환
외국인, 4거래일 합산 약 20조원 순매도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7,643.15pt (-2.29%)	1,179.29pt (-2.32%)	1,183.41pt (-2.31%)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87.60 원 (+14.9 원)	4.0020% (+5.2bp)	7,415.50pt (-0.29%)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66,770 억	-2,219 억	-5,600 억
외국인	-56,244 억	+5,099 억	-1,867 억
기관	-12,102 억	-2,581 억	+8,846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코스피는 8,000선을 목전에 두고 하락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높아진 가운데, 국채금리 상승과 지정학 우려가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BOJ가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일본 국채금리가 상승했고, 해당 여파에 달러/원 환율과 국고채 금리가 동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난항에 전투 재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4거래일 동안 20조원 이상 순매도한 점도 지수에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해당 물량 대부분을 개인 투자자가 소화했으나, 외국인의 지속된 매물 출회로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KOSPI는 2.29%, KOSDAQ은 2.32% 내렸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66.6조원, KOSDAQ은 약 21.2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5.4조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금속과 화학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운송장비/부품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KOSPI를 8천억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기계/장비와 운송/창고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그간 약세를 지속했던 바이오 업종이 반등했습니다. 로봇 사업 성장 기대에 LG전자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판 대표 기업 이비덴이 긍정적 매출 전망을 제시하면서 삼성전기가 상승했습니다. 한편, 최근 강세였던 전력기기와 반도체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증권주가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LG전자(+18.00%), 리가켐바이오(+10.48%), 삼성전기(+6.44%)가 올랐고, 미래에셋증권(-6.42%), SK스퀘어(-5.14%), 삼성전자(-2.28%)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